

『八仙得道傳』을 통해 본 龍의 상징성 및 지향성

- 榮, 和, 勇의 의미를 중심으로

朴馬利阿*

目 录

1. 서언
2. 榮과 辱
3. 和와 爭
4. 勇과 懼
5. 결어

1. 서언

龍은 예로부터 神妙한 동물로 알려져 왔다. 龍은 지배적인 힘을 나타내는 권위의 상징이나 무한한 역량을 나타내기도 하고, 열 두 동물의 특징을 모두 내포하는 외면적 특징이 융합과 조화의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 외에도 하늘을 향해 힘차게 비약하는 용의 모습은 새로운 세계를 향한 도약과 용기 있는 도전정신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러나 龍이 이렇듯 늘 긍정적인 일면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龍은 사악함과 패도적인 면 외에 자신이 대적해야 할 적수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므로 부정적 존재로 인식되기도 한다. 문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부정적이며 나악한 龍의 이미지를 나타낸 대표적인 소설로 『西遊記』와 『封神演義』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소설에서는 龍의 긍정적 이미지는 보다

* 大眞大學校 教養學科 講師

는 나약하고 비굴한 이미지가 주로 부각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¹⁾

이와 비교하여 清代 無垢道人的 작품으로 전해지는 『八仙得道傳』²⁾에서는 龍이 상징하는 긍정적 특성들이 龍과 神仙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확연히 표출되고 있다.

즉 『八仙得道傳』에서는 두 남녀가 龍이 되는 과정과, 그들이 부부가 된 이후 四海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여러 신선들이 龍의 관할 범주 속에서 겪는 사건에 대한 서술이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 특히 『八仙得道傳』에서 龍의 治理 범주인 四海는 곧 龍性を 대변하는 매개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데, 四海와 연관된 神仙의 이야기는 자고이래로 전해져 오는 물과 龍의 관계를 시사

- 1) 『西遊記』에서는 손오공이 龍王이 사는 수정궁을 찾아 와 용궁에 있는 무기를 자신에게 바치라고 협박하는데 龍王은 손오공의 무리한 요구에 속수무책으로 응할 수밖에 없게 된다. 손오공은 龍王이 바치는 어떤 무기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며 뿌리치다가 龍王이 바다 밑에 如意金箍棒이 있다고 말하자 그것을 달라고 말한다. 이 외에도 손오공은 龍王에게 자신이 입을 옷을 구해오라 명령하게 되는데, 이에 東海龍王 敖廣은 南海龍王 敖欽, 北海龍王 敖順, 西海龍王 敖閔을 불러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四海의 龍王들은 금관과 황금갑옷 등을 손오공에게 바치게 된다. (吳承恩, 『西遊記』, 福州: 福建美術出版社, 2012 참조.) 『封神演義』에서는 哪吒가 『西遊記』에서의 손오공의 역할을 맡게 된다. 哪吒는 스승으로부터 전해 받은 법력이 강한 수건을 사용하여 강에서 목욕을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용왕이 사는 수정궁이 흔들리게 된다. 東海龍君 敖光是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채 수하에게 정황을 알아보게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東海龍君의 수하가 哪吒와 서로 다투게 되어 哪吒의 손에 무참히 살해된다. 후에 東海龍君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분노하자 龍君의 셋째 아들인 敖丙이 나서서 哪吒와 격돌하게 되지만 哪吒에게 참패하고 죽게 된다. 이에 東海龍君은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기타 龍君들을 불러 그들과 함께 玉帝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니 玉帝가 哪吒의 부모를 벌 하겠다 하며 그들을 불러들이도록 한다. 일이 이렇게 되자, 哪吒가 四海의 龍君을 향해 자신의 골육을 다 도려내는 것으로 부모가 받을 벌을 대신하겠다고 함으로써 龍君과 哪吒의 접전이 마무리되게 된다. (許仲琳, 『封神演義』, 長沙: 岳麓書社, 2012 참조.) 『封神演義』에서는 특히 일반적으로 龍王으로 쓰여 지는 호칭을 龍君이라 칭하고 있어 龍의 지위가 한층 더 격하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 2) 『八仙得道傳』은 『八仙全書』라고도 불리며 八仙 소재의 작품 중 八仙의 고사가 가장 완전하게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無垢道人도인에 의해 쓰여 졌던 『八仙得道傳』은 그 원본이 소실되었는데, 후인들에 의해 다시 정리되어 1935년 大衆書局에 의해 정식으로 출판되었다. (無垢道人, 『八仙得道傳』, 南京: 鳳凰出版社, 2008. 1-2쪽 참조.)

하고 있다. 예를 들면, 龍은 喜水라는 神性을 지니고 있음과 동시에 구름과 비를 주재한다고 알려져 있는가 하면, 근본적으로 水物 혹은 水相으로 인식된다.³⁾ 『淮南子·地形訓』에서는 “黃龍이 들어가면 黃泉이 만들어지고 靑龍이 들어가면 靑泉이 만들어진다”⁴⁾라고 하여 龍이 물을 만드는 원류임을 말하고 있다. 이와 연관된 문학적 고사를 살펴보면, 『太平廣記』에서는 권418부터 권425까지 90개 이상의 龍에 관한 故事가 소개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故事에서 龍은 비, 우물, 연못, 진흙, 강 등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는 물의 의미와 밀접한 연관을 보이고 있다.⁵⁾

『八仙得道傳』에서는 四海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龍과 직, 간접적인 관계를 지니는데, 바다에 살던 달팽이가 수행을 통해 여인으로 변해 인간과 결합하여 낳은 아이가 八仙의 일인인 張果老가 된다는 고사는 張果老라는 존재의 기원을 바다에 두고 있음과 그 고사가 龍의 의미와 간접적인 연관성을 지님을 말해 주고 있다. 그 외에도 『八仙得道傳』에서는 馬上姑娘과 孟姜女의 後身인 月英 등이 절박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바다에 투신하는 내용이 묘사되고 있다. 이들은 바다에 몸을 던져 ‘肉身の 죽음’을 겪은 후, 다시 환생하여 스스로 신선이 되거나 자신의 情人이 신선이 되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八仙의 유래와 깊은 연관이 있다. 이렇듯 두 여인이 바다에 투신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삶을 찾게 된다는 의미에서 볼 때, 여기서의 바다는 새 생명의 에너지를(Energie)를 창출하는 장소로서의 뜻을 내포하는데 바다는 곧 龍의 관할지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龍의 의미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볼 때, 『八仙得道傳』내의 주된 테마는 八仙이 得道하는 과정에 있지만, 八仙得道라는 故事의 저변에는 龍이라는 존재가 갖는 상징적 의미들이 基層을 이루고 있다. 『八仙得道傳』에서는 특히 龍이 상징하는 의미에 대한 지향성과 이에 대한 대립적 개념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통

3) 龐進, 『中國龍文化』, 重慶: 重慶出版社, 2007, 177쪽.

4) 阮青 注釋, 『淮南子』注釋本, 北京: 華夏出版社, 2000, 80쪽.

5) 李昉 編纂, 『太平廣記』, 長春: 吉林攝影出版社, 2003 참조.

해 龍이 상징하는 복합적 의미를 나타낸다기보다, 대칭적 구조를 통해 『八仙得道傳』에서 지향하는 龍의 의미를 더욱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八仙得道傳』에 투영된 龍의 상징적 의미들을 살펴봄을 통해, 그 중에 내포된 지향점의 기준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2. 榮과辱

『八仙得道傳』은 인간으로서 龍이 된 平和와 飛龍의 故事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平和는 지극한 효자로서 눈이 먼 어머니의 시력을 찾아 주기 위해 애쓰던 중, 한 仙人의 도움으로 龍이 오랜 기간 江에서 수련을 거듭하여 만든 龍丹을 가로채게 된다. 平和가 훔쳐온 龍丹으로 그의 어머니는 두 눈을 뜨게 되는데, 龍丹은 실로 영험한 물건이라 平和가 바라는 것은 모두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平和는 龍丹의 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병을 고쳐주게 되는데, 龍丹의 효력을 알게 된 지방관리가 탐심을 일으켜 龍丹을 빼앗으려 하자 平和는 스스로 龍丹을 삼켜 버린다. 이렇게 되어 平和는 龍의 정혼으로 化하여 龍丹을 연마했던 龍과 一體를 이루게 됨으로써 스스로 龍이 된다.

한편 신들의 계획에 의해 한 여인이 벽력이 내뿜은 빛을 삼킨 후, 아이를 낳아 飛龍이라 하였는데, 남녀가 야합하여 낳은 아이라 하여 그 어머니가 궁지에 몰려 자결하자, 仙人이 飛龍을 도와 원래의 모습인 龍으로 化하게 한다. 平和와 飛龍은 후에 만나게 되어 서로의 龍珠 즉 龍丹을 가로채기 위해 잠시 接戰하게 되지만 각자의 龍丹은 스스로에게만 감응할 뿐 상대에게 어떤 효용도 발휘하지 못함을 알게 된 후 서로 다툰 것을 후회하게 된다. 이들의 다툼을 알고 노했던 玉帝가 결국 그들 한 쌍을 결합시키게 되고 이들은 龍王 부부가 되어 黃河를 다스리게 된다.

平和와 飛龍의 이야기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도 연계되는데 당시는 전국에 홍수가 범람하여 생민이 많은 곤란을 겪는 중에 禹가 治水를 행하던 시기

로서, 玉帝는 平和와 飛龍으로 하여금 禹의 治水를 돕도록 命한다. 관련된 본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로부터 龍王 부부는 玉帝의 命을 마음에 새겨, 禹와 益을 돕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고 禹와 益이 육지로부터 흘러보낸 물을 바다로 거두었다. 또한 일 처리에 능한 수하의 장졸들을 파견하여 中原에 흘러들어 다른 생명을 괴롭히는 蛟龍이나 악어, 자라 등을 잡아들이게 하여 다시 바다로 돌아오게 하였다. …野獸들에 의한 患難은 伯益이 장정 등을 이끌고 산에 올라가 불을 피워 잡거나 하면 되는 것으로 이런 일들은 人力으로 능히 해결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바다 중의 일은 龍王 부부의 도움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일인 것이다.⁶⁾

이로써 龍王 부부는 禹를 도와 당시 治水를 돕는 大業을 담당하게 된다. 龐進은 禹가 治水를 행하던 당시의 상황을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堯임금시기 江河에 홍수가 범람하였고, 오곡이 풍성한 中原지역에는 야수들이 빈번히 출몰하여 백성들을 해하였다. 또한 곳곳에서 야만 씨족들이 반란을 일으킴에 따라 천하가 매우 어지럽고 불안하였다. 堯는 즉위 후에 華夏 지역 내부의 단결을 도모하였고 법률제도를 제정하였다. 또한 羲和에게 명하여 역법을 셈하여 日月星相을 관측하게 하였고, 虞舜과 夏禹를 기용하여 夏禹가 父業을 이어 江河를 다스리게 하게 하여 생민을 괴롭히던 홍수의 문제를 해결하였다.⁷⁾

『八仙得道傳』에서는 이렇듯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던 시기에 平

- 6) 從此龍王夫婦果然小心在意,夙夜匪懈地輔助禹、益,導來的水一起收入海中,其有海族蛟龍鼉鼉之類流入中原毒害生靈者,龍王便派遣手下練就的將卒前去收伏,仍舊攆回海中…。對於獸患,一方面由伯益率領丁壯,預備火器焚山搜捕,殺斃無算,這都是人力所能的事情。至於海面上的事情,卻虧龍王夫婦協力說明才得完全成功。(無垢道人,『八仙得道傳』,南京:鳳凰出版社,2008,56쪽.)
- 7) 史載堯時江河洪水氾濫,中原地區五穀歉收,猛獸頻繁出沒,傷害百姓,再加上四方野蠻氏族反叛,天下不安動盪。堯即位後,加強華夏集團內部的團結,制定各項法律制度。命令羲和掌管曆法推算和日月星相的觀測。又大膽起用虞舜和夏禹繼承父業,繼續治理江河,終於將肆虐的洪水治平。(龐進,『龍之魅-中華龍文化50講』,天津:百花文藝出版社,2011,37쪽 참조.)

和와 飛龍이 물을 다스리는데 큰 공을 이루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기실 龍은 근원적으로 물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물이 지닌 근원적 에너지에 상응한다. “龍은 예로부터 물에서 태어났다고 알려졌는가 하면, 물에 오르면 神이 일어나고 물을 잃으면 神이 힘을 발휘하지 못 한다”⁸⁾라 하였다. 何星亮은 龍은 神農時期에 이미 雨神의 기능을 담당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⁹⁾

이러한 예로서 商代에는 비를 구할 때 瓏을 썼는데, 『說文』에서는 瓏에 대한 설명으로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기도할 때 썼던 玉으로, 龍의 그림을 새겼다고 말하고 있다.¹⁰⁾ 사람들은 또한 龍이 雷雨와 감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으며 龍을 雷雨神으로 보기도 하였다.¹¹⁾

이로 볼 때, 龍은 만민의 해갈을 담당하는 雨神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는데, 물을 자유자재로 운용하는 龍의 능력은 『八仙得道傳』에서 治水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곧 물의 에너지를 관장할 수 있는 龍은 가뭄에 허덕이는 민중의 눈과 밭에 단비를 선사함과 마찬가지로 물로 인한 재해로부터 민중을 구제하는데 힘을 부여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八仙得道傳』에 나타난 治水의 龍은 一國의 偉業을 달성할 수 있는 힘을 지닌 龍이다. 또한 平和라는 평민의 아들이 효성의 발로로서 龍丹을 훔침을 시작으로, 龍王이 되어 四海를 다스려 人界의 혼란을 수습하는데 일조한다는 내용은 신화가 지닌 신비적 의미를 짙게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八仙得道傳』에서는 龍성이 지닌 긍정적 일면만을 묘사하지는 않았는데, 龍과 관련한 부정적 사건을 일부 언급하여 龍성의 긍정적 일면과 대립을 이루게 함으로서, 소설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龍의 의미를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즉 『八仙得道傳』에서는 平和와 飛龍이 네 아들을 낳았으며 또한 두 손자를 얻었음을 말하고 있는데, 모두 100章回에 이르는 『八仙得道傳』은 99章回 截

8) 乘于水, 則神立; 失于水, 則神廢. (같은 책, 97쪽.)

9) 何星亮, 『龍: 圖騰——神』, 民族研究, 第二期, 1993, 120쪽 참조.

10) 龐進, 『龍之魅——中華龍文化50講』,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2011, 120-121쪽 참조.

11) 王大有, 『中華文化文庫-中華龍種文化』, 北京: 中國時代經濟出版社, 2006, 188쪽 참조.

에 이르러 반전의 묘미를 살리고 있다. 제1章回부터 98章回에 이르기까지 『八仙得道傳』에서는 平和와 飛龍이 治水의 대업에 일조함과 곤란에 빠진 생민들을 구제하는 龍王의 영예로운 업적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긍정적 일면의 龍性에 대한 지향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99章回에 이르러서는 藍采和가 神仙들의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바다를 건너다 실수로 白玉花籃을 떨어뜨리자, 平和의 손자인 磨昂, 磨閏이 이를 탐하는 장면이 소개된다. 白玉花籃을 잃어버린 藍采和는 何仙姑와 함께 물건을 찾기 위해 磨昂, 磨閏을 만나지만 그들이 물건을 내놓지 않자 서로 간에 決戰이 벌어지게 되는데, 두 신선은 결국 磨昂, 磨閏을 죽이고 만다. 이에 龍王이 크게 노하여 많은 군졸들로 하여금 두 신선을 처단토록 하자, 龍王과 八仙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八仙은 龍王과 그의 家屬들을 모두 없애 버리고 만다. 終局에 玉帝가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되고, 二龍의 前績과 업적을 인정함으로써 二龍과 그들의 자손 모두는 다시 인세에 태어나게 된다.

『八仙得道傳』에서는 二龍의 榮辱에 관한 역사를 묘술하고 있는데, 소설 중의 대부분의 내용에서 龍王의 업적을 찬양하면서도 소설의 말미에서는 정의롭지 못한 후손의 행위로 인해 화를 면치 못하는 龍王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이는 결국 龍王이 이룬 성대한 과업과 노고를 인정해야 하지만 부당한 행위에 대한 응징은 비록 龍王이라 할지라도 피할 수 없음을 피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四海를 좌우하는 龍王의 자리가 막강한 권위를 상징한다고 할 때, 권위로써 부당을 정당화하려는 행위는 마땅히 처벌되어야 하며 권위가 부정당과 합류하게 될 때 권위가 지닌 본연의 신성한 의미 또한 상실케 됨을 말하는 교훈적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로 볼 때, 『八仙得道傳』에서는 자신의 권위와 힘으로써 영예로움을 창조해 내는 龍의 이미지와 위압과 파괴를 일삼는 형상이 서로 대비를 이루게 함으로써, 소설이 지향하는 긍정적인 龍性의 의미를 더욱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3. 和와 爭

『八仙得道傳』에서는 龍王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 외에도 龍王의 治理 영역 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고사들을 통해 龍의 함의와 특성을 표현하고 있다. 그 중 張果老, 李鐵拐, 何仙姑가 신선이 되는 과정에 대한 서사는 뿌리 깊은 윤리도덕에 관한 인식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는데 세 사람이 신선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河南호산 아래의 孫杰은 어머니를 모시고 妻와 함께 살았는데, 病中の 어머니는 특히 달팽이를 좋아하여 종종 아들에게 달팽이 요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였다. 때는 夏왕조의 水災가 잇따르던 시기로서 孫杰이 살던 곳 또한 홍수가 범람하였는데, 어느 날 큰 물살에 휩쓸려 커다란 달팽이가 孫杰의 집으로 밀려오게 되었다. 효성이 지극한 孫杰은 달팽이를 어머니께 드리려다 건강에 누가 될까 우려하여 밀반죽으로 달팽이 요리를 대신하여 어머니께 드렸으므로 달팽이 또한 자연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다. 孫杰의 妻는 평소 그 달팽이를 귀히 여겨 정성껏 키웠는데, 孫杰의 어머니가 수명이 다하여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 그 아내 또한 병이 들어 죽고 말았다. 이후 孫杰이 신변에 아무도 없는 고독한 생활을 하게 되자, 孫杰이 집에 없는 때면 달팽이가 고운 처녀로 변하여 집안일을 도맡아 하였다. 그 처녀는 이름을 羅圓이라 하였는데 후에 孫杰에 의해 그 실체가 밝혀지자 둘은 결혼하기에 이르렀고 仙賜라는 아들을 얻게 되었다. 仙賜는 잘 성장하여 成婚하기에 이르렀으나 형의 덕성을 시기하는 교활한 아우 蛟兒에 의해 독살당하고 만다. 蛟兒은 또한 그 어미인 羅圓이 수행을 통해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버리고 완전한 인간으로 化하려 하는 것을 방해한다. 이에 羅圓은 결국 달팽이 집 속으로 다시 돌아가 그 속에 거대한 규모의 道場을 짓고 지속적인 수행에 임하게 된다. 이후 商代에 이르러 孫杰은 張王成으로, 仙賜는 張王成의 아들인 張果老로 다시 태어나 八仙의 하나가 된다.

2. 周代 중엽 長江의 중류 지역에 살던 馬上姑娘은 어느 寒士와 결혼하여 살게 되었는데 남편에게는 後母가 있어 馬上姑娘을 매우 학대하였다. 부부가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극정성으로 後母를 모시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던 중, 馬上姑娘의 남편은 곤궁을 탈피하기 위해 외지에 나가 돈을 벌 궁리를 하게 된다. 그러나 막상 타지에 나가 많은 돈을 벌게 되자 그는 부부간의 情理를 저버리고 타지에서의 안락한 생활에 빠져 들게 된다. 이런 남편의 상황을 알 길 없는 馬上姑娘은 지성껏 시어머니를 받들지만 시어머니의 학대는 갈수록 심해져 급기야 얼마간의 금전을 받고 馬上姑娘을 같은 촌락의 무뢰배에게 팔아 버리게 된다. 사연을 모르고 가마에 태워져 길을 가던 중 가마꾼으로부터 사실을 듣게 된 馬上姑娘은 강에 투신하게 된다. 이때 李玄이라는 수행자가 물에 빠진 馬上姑娘을 龍王의 거처인 수정궁으로 데려가게 되고 사건의 전말을 전해들은 龍王은 馬上姑娘이 환생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후에 馬上姑娘은 何杰이라는 사람의 딸인 何蘭仙으로 환생하게 되며 八仙의 일인인 何仙姑가 된다.
3. 馬上姑娘의 목숨을 구한 李玄은 스스로 또 다른 고초를 겪은 후 신선으로 화하게 된다. 예를 들면, 老子的 靑牛가 수행자로 변신하여 속히 신선이 될 수 있는 비방을 전해 주겠다고 李玄을 유혹하여 그를 해하려 하던 중 老子的 도움으로 위험을 벗어나게 된다. 또한 白玉夫人이라는 女怪에게 이끌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나 文始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부지하게 된다. 李玄은 여러 妖魔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은 끝에 八仙의 일인인 李鐵拐가 되는데, 李鐵拐는 물에 빠진 馬上姑娘을 구하던 중, 그녀의 한 쪽 다리를 잃게 한 연고로 한 쪽 다리를 절게 된다. 또한 그는 羅圓이 달팽이 집 속에 만든 道場을 책임지는 道長의 임무를 맡게 되기도 한다.

張果老, 李鐵拐, 何仙姑는 得道 전에 많은 고초를 겪게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신선이 되는데, 이는 이들의 본성이 불의에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善함을

추구 것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위의 세 가지 고사에서는 좋이라는 포괄적 개념이 孝와 慈의 개념으로 구체화되어 강조되고 있다.

孝의 의미는 『八仙得道傳』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平和가 어머니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龍丹을 훔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되어, 平和가 龍丹을 삼켜 龍으로 化하게 되자 어머니와의 이별을 슬퍼하여 흘린 두 줄기의 눈물이 城隍娘灘을 이루게 되었다는 대목에서 절정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효성의 주제는 병든 어머니를 지성껏 보살피는 孫杰과 그의 妻에 관한 이야기나, 馬上姑娘이 시어머니의 무참한 학대를 인내하며 시부모를 받들고자 노력하는 내용 등에서 지속적으로 언급 되어 지고 있다.

이 외에도 慈의 개념은 孫杰과 그의 아내가 홍수에 떠밀려온 달팽이를 살려주고 키워주는 부분이나, 李玄이 물에 빠진 馬上姑娘을 救濟하여 주는 내용에서 그 구체적 의미가 體現되고 있다. 이러한 慈의 개념은 또한 달팽이 처녀의 인간에 대한 보은적 행위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龍王이 李玄의 청을 받아들여 馬上姑娘을 돕게 된다는 내용은 神과 인간의 소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인간과 神의 조화와 소통을 龍이 지닌 상징적 의미와 연계해 볼 때, 이는 포괄적인 合和의 의미로 귀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合자 자체가 會合, 結合, 摻合, 混雜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合和는 또한 和로 簡稱할 수 있을 것인데,¹²⁾ 이는 龍에 내재된 神性인 和의 의미와 상통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龍은 일반적으로 열 두 동물이 합하여진 형상을 지녔다고 알려져 있다.

龐進은 용은 뱀, 악어, 물고기, 돼지, 말, 소, 노루 등의 동물과 뇌전, 운무, 虹霓, 龍卷風 등의 다원적인 형상과 의미들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일종의 神物이라고 말한다. 즉 龍은 비록 어떤 자연물이나 천계의 현상은 아니지만, 다양한 자연물과 천계의 현상들이 융합되어 만들어진 것이다.¹³⁾ 龍은 또한 人天

12) 龐進, 『中國龍文化』, 重慶: 重慶出版社, 2007, 279쪽 참조.

關係를 형상화한 것으로, 생동감 있는 머리와 얼굴, 뿔과 비늘, 그리고 발과 발톱은 하늘이 인간에게 내린 하나의 부호라 설명되어 지기도 하며¹⁴⁾, 在心之象과 有形之象의 결합¹⁵⁾이라 일컬어지기도 한다. 이렇듯 神物로서의 龍은 “다양한 동물과 다양한 자연현상과 융합되어 있으며, 많은 대상들이 합하여져 생동과 新奇의 의미를”¹⁶⁾ 발현시키고 있는데, 다양함으로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고 하늘과 인간을 소통하게 하는 매개체적 의미를 지닌다는 측면에서 龍은 和의 상징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소설 중의 張果老, 李鐵拐, 何仙姑가 신선이 되는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孝와 慈에 관한 표출은 龍이 상징하는 화합의 의미와 확연한 연계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소설 중에서 相剋을 조장하는 蛟兒, 靑牛, 白玉夫人과 기타의 妖魔들은 和의 의미와 상대적인 개념을 형성하는 爭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蛟兒는 형제인 仙賜가 자신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仙賜를 謀害하고 독살하는가 하면, 심지어 자신을 낳은 어미인 羅圓과 아버지를 해하는 모습을 보여 극단에 이르는 爭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蛟兒은 그 이름 자체로서 龍과 확연한 차이가 있는 蛟龍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蛟龍은 악어와 비슷한 생김새를 지녔는데, 吳越일대에서는 蛟龍이 나타나게 되면 홍수의 재해가 일어나므로 이를 ‘發洪’이라 한다 하였다. 또한 蛟龍은 자주 육지에 출몰하여 사람을 해하고 잡아먹는가 하면, 심지어 호랑이조차 꼬리의 힘으로 혼절시킨 다음 잡아먹기도 했다고 전한다.¹⁷⁾ 郭璞 또한 『산해경』에서 蛟龍이 “능히 사람을 집어 삼킨다”¹⁸⁾고 역주에서 말하고 있다. 이 외에도 『太平廣記』에서는 9월에 蛟를 죽이고 악어를 잡는 것을 보건대, 蛟는 죽여도 되지만 龍은 건드려서는 안 된

13) 같은 책, 297쪽 참조.

14) 같은 책, 290쪽 참조.

15) 龐進, 『龍之魅-中華龍文化50講』,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2011, 22쪽.

16) 衆多的對象 ‘合’ 成一個生動神奇的形象. (龐進, 『中國龍文化』, 重慶: 重慶出版社, 2007, 280쪽.)

17) 같은 책, 115쪽 참조.

18) 『산해경』, 정재서 역주, 서울: 민음사, 1985, 197쪽.

다는 『月令』중의 말을 인용하여 蛟龍에 대해 평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의 피를 흡입한다 한다 하여 상서롭지 못한 생물로 귀결시키고 있다.¹⁹⁾ 이렇게 볼 때, 『八仙得道傳』에서의 蛟兒의 의미는 긍정적인 龍性인 和와 상반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靑牛는 스승인 老子를 속이고 人世에 내려와 악행을 자행하며, 白玉夫人은 백옥과 같은 자태로 생민들을 유인하여 그들의 精氣를 취해 스스로의 長生을 추구한다. 이들은 행위는 모두 윤리 도덕적 의미에 反함은 물론, 천리에 위배되는 의미를 가진다는 측면에서 逆의 의미를 지닌다. 逆은 또한 화합을 추구하지 않고 순리를 거스르는 강한 대립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和에 대립되는 爭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소설 중 龍王의 治理 영역에서 벌어지는 신선의 故事들은 龍이 상징하는 다양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 곧 신선들의 故事에서는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인간과 신의 조화와 화해를 강조하는 한편, 그들을 해하고 괴롭히는 상대적 대상들의 시기, 탐심, 음욕 등을 그려 냄으로써 和의 의미와 상반되는 分裂과 相爭을 멀리 해야 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4. 勇과 懼

『八仙得道傳』의 시대적 배경은 夏왕조로부터 시작되어 宋末에 이르는데 八仙得道와 관련된 이야기는 주로 시대의 추이와 연관되어 서술되고 있다. 상술한 내용에서는 주로 夏왕조로부터 商, 周代에 이르러 전개되는 이야기가 소개되었다.

『八仙得道傳』에서 황하 유역에 대한 二龍의 治理는 宋末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와 연관된 내용 중에는 范杞良과 孟姜女에 대한 故事도 포함된다. 『八仙得道傳』중 范杞良과 孟姜女에 대한 故事는 진시황조를 배경으로 하여 전개

19) 李昉 編纂, 『太平廣記』, 長春: 吉林攝影出版社, 2003 참조.

되는데, 민간에서 주로 전해오는 故事와는 다르다. 즉 『八仙得道傳』에서는 일반적인 孟姜女의 故事와는 다르게 范杞良과 孟姜女가 환생하여 다시 상봉한 후 范杞良이 다시 八仙의 일인인 藍采和가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또한 진시황조 시대의 孟姜女의 이야기를 간단히 언급한 후, 이들이 환생하여 다시 만난 시간 이후의 시간적 배경에 이야기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范杞良이 만리장성을 짓기 위해 징발되어 노역에 시달리다 죽게 된 후, 孟姜女는 남편의 죽음에 대해 통탄해 마지않는 한편으로, 진시황이 孟姜女의 미모에 반하여 자신을 탐하려 하자 바다에 빠져 殉夫死節하게 된다. 孟姜女가 오직 지아비를 그리워하여 殉節하였음에도 후에 사병들이 달려들어 그녀의 몸을 난도질하게 되는데, 이에 안타까운 마음을 견디지 못한 李鐵拐가 바다 위로 떨어진 孟姜女의 살점들을 물고기로 변하게 하여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도록 한다. 孟姜女의 아름다운 마음 때문인지 물고기들은 물 위를 떠내려가며 은빛으로 빛나게 되는데, 이에 何仙姑는 물고기의 이름을 銀魚라 이름 하게 된다. 李鐵拐와 何仙姑 등은 부부의 죽음을 애통해 하며 그들을 환생시켜 신선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冥府의 왕을 찾아가 부부가 겪은 우여곡절을 설명하고 그들을 환생시켜 줄 것을 설득한다. 冥府의 왕은 많은 양민들을 희생시키는 진시황의 폭정에 분개하며 이들의 환생을 도와줌으로써 이들은 강의 남쪽 지역에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范杞良은 藍采和로 孟姜女는 月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 藍采和와 月英은 전생의 인연으로 이어진 사이이므로 장성한 이후 자연히 상봉하여 서로 연모하는 사이가 된다. 이후 月英은 藍采和가 수행의 길을 가서 신선이 되어야만 자신도 탈속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藍采和에게 구도의 길을 갈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藍采和는 현세에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수행의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데 대해 두려움이 앞선 나머지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이를 망설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藍采和의 부친이 죽자 後母인 胡氏가 집안의 전권을 장악하여 자신이 모든 재산을 차지하고 藍采和를 내쫓다시피 하는가 하면 月英에게 갖은 고된 일을

시키고 외간 남자와 通姦했다는 등의 누명을 씌워 그녀를 가두고 만다. 이때 藍采和는 月英의 말을 듣고 수행의 길을 걷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되는데 胡氏 집안의 압력에 견디지 못한 두 사람은 결국 강에 몸을 던지는 길을 택하게 된다. 그러나 玉帝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갖은 악행을 행한 胡氏 집안은 玉帝의 명에 의해 벼락으로 응징을 받게 되고 藍采和와 月英은 다시 구제 받게 된다. 이에 藍采和는 좀 더 일찍 구도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아래와 같이 말한다.

오늘날 제자는 과거에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길에 들어서 있었음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로 인해 月英이 仙緣에 들 수 있는 길을 막았고, 제자 본인 또한 많은 어려움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지금에 이르러 보니 스스로 지식을 쌓지도 못하고, 나쁜 계모를 만나 학대를 당해야 했습니다. 만약 신선들께서 도와주하지 않았다면 벌써 물고기 뱃속에서 葬事 지내야 했을 것이니 어찌 공명과 부귀를 논하겠습니까.²⁰⁾

藍采和는 자신이 다시 인세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부귀영화를 쫓아 헤매던 과거를 후회하며 月英와 함께 구도의 길에 들어서고 후에 八仙의 일인이 된다. 즉 『八仙得道傳』에서는 기존의 孟姜女 고사를 각색하여 원래의 고사와는 결론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내었는데, 전생이 孟姜女인 月英이 전생이 范杞良인 藍采和가 수행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그를 돕고 바른 길로 이끈다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다.

『左傳』과 『檀弓 孟子·告子篇 列女傳』의 故事는 『藥府詩集』에서 秦始皇이 長城을 건립하는 이야기의 前身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는 또한 현존하는 「孟姜女送寒衣」를 이루는 기틀이 되었다고 전해지는데,²¹⁾ 『八仙得道傳』에서는 「孟姜女送寒衣」라는 唱本과 동일한 이야기가 어느 정도 언급되고 있다. 즉 민

20) 弟子今已豁然大悟,自知此前陳米的無理。不但害得月英無端耽誤仙緣,就是弟子本人,也何嘗不自討苦吃。現在讀書未成,嚴慈見背,繼母不仁,一再肆虐。弟子今日若不虧仙師援手,此時早已葬身魚腹之中,還有什麼功名富貴可言。(無垢道人,『八仙得道傳』,南京:鳳凰出版社,2008. 368쪽.)

21) 顧頡剛,『孟姜女故事研究集』,臺北: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2004, 82쪽 참조.

십이 어지럽고 정세가 혼란했던 시기에 여인의 몸으로 홀로 남편을 찾아 길을 떠나는가 하면, 이미 목숨을 잃은 남편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끝내 그의 사체를 찾아내고 진시황의 탐심에 대응하여 자신의 몸을 바다에 내던지는 孟姜女의 모습은 순종과 억압에 길들여진 고대 사회의 여인상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이렇게 볼 때, 『八仙得道傳』에서의 孟姜女는 피지배자로서의 여성의 숙명을 오롯이 받아들였던 보편적 여성상과 달리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의 힘으로 제어해 보고자 시도하며 억압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反운명’ 적 성향은 月英의 이미지에서 더욱 구체화되고 확실시된다.

곧 月英은 藍采和와 成婚하여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조건에 미혹되기 보다는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을 위해 끊임없이 분투한다. 이러한 내용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月英과 藍采和는 집안의 어른들에 의해 어릴 적부터 정혼한 사이였으나 月英은 스스로 求道의 길을 갈 것이라 결심하고 藍采和도 이에 동의하여 함께 理想을 이룰 것을 제안한다. → 藍采和가 月英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귀공명의 길을 좇으려 함에도 月英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藍采和를 설득한다. → 藍采和의 後母로 인해 강제로 갖은 일을 해야 했으나 月英은 홀로 좌선을 행하는 등 스스로의 수련에 정진한다. → 藍采和의 後母와 연관된 인물들이 자신들에게 반항하지 말고 순종하며 살기를 종용하나 月英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藍采和와 함께 끝내 바다에 몸을 던진다.

月英과 구도의 길을 갈 것을 결심한 藍采和가 운명에 순종하지 않고 강에 투신하는 장면은 馬上姑娘이 시어머니에 의해 팔려 가는 신세를 거부하고 강에 투신하는 장면을 연상케 한다. 강에 투신했던 馬上姑娘은 龍王의 도움과 玉帝의 명에 의해 인세에 다시 태어나 신선이 되는데, 주변 인물들의 모함과 계략으로 위협에 봉착한 月英과 藍采和 또한 강에 투신하는 과정을 통해 玉帝에 의해 구원되어 구도에 매진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이들은 모두 강에 자신의 몸을 투신하는 방법을 통해 ‘재생’의 길을 열게 되는데, 특히 月英은 孟姜女였던 전생에서도 지아비를 잃고 진시황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물에

내던져지는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결국 月英은 孟姜女-月英-재생의 삶을 얻는 과정에서 모두 ‘강’이나 ‘바다’ 즉 ‘물’과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되는데, 여기서 ‘물’은 ‘절망’적 상황에서의 탈출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결국 절망으로부터 구원의 손길을 얻게 되는 四海는 龍王의 治理 영역에 속함은 물론 물은 곧 龍性을 대표하는 의미를 지니므로, 月英의 고사는 앞서 소개한 고사들에 비해 간접적이긴 하나 二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孟姜女라는 전생과 月英으로 살아가는 현생에서 외부의 압제에 의해 강에 던져지고 스스로 강에 투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도 새로운 생명으로 피어나는 月英의 모습은 억압의 어두움을 물리치는 강인함을 드러내고 있다.

즉 月英은 孟姜女와 마찬가지로 불의에 타협하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결국 玉帝와 신선들의 도움을 받아 度脫할 수 있게 되기에는 度脫에 대한 月英의 일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에 藍采和가 자신의 파오를 뒤흔치고 수행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기까지 月英의 변치 않는 의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봉건적 환경에 대항하여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月英의 모습은 억압의 세력을 떨쳐 내는 강한 용기를 수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月英의 용기는 또한 무모하고 맹목적인 성질의 것이라기보다 자강불식, 고군분투의 방향성을 지니고 있음으로써 용이 지닌 挑戰과 超越의 神性和 상통하는 일면을 드러내고 있다.

다시 말해, 갑골문에서의 龍은 뱀 형상의 몸 위에 칼을 의미하는 辛자를 머리에 이고 있는 龍형상을 하고 있다. 이는 곧 위엄과 용맹함, 그리고 날카롭고 큰 이빨을 지닌 맹수를 의미한다.²²⁾ 龍의 용맹함은 또한 호랑이와 비견되는 경우가 많아 龍精虎猛, 龍虎相搏, 龍吟虎嘯 등의 성어가 존재 한다. 이 외에도 龍은 날기를 좋아하는 神性を 지녔는데, 이는 곧 분투, 전진과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다. 龍은 水神으로서 수중에서의 활동은 龍의 장기라 할 수 있으며, 하늘로 힘차게 날아오름은 龍의 本舍이라 할 수 있다. 수중에 있든 아니면 하늘로 오르든 龍을 통해 우리는 머리를 들고 수염을 휘날리는 모습, 눈

22) 龍芑穆, 「試論中國龍文化的起源」, 大眾文藝, 19期, 2010, 116쪽 참조.

을 부릅뜨고 힘차게 비늘을 떠는 모습, 심기일전하는 모습, 전력을 다해 질주하는 형상을 보게 된다. 23)

龍이 지닌 이러한 고군부투의 에너지를 月英이 체현하고 있다면, 신선이 되기 전 藍采和의 모습은 도전을 두려워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여 月英의 용기 있고 진취적인 모습과 상반되는 이미지를 보이고 있다. 즉 藍采和는 月英이 구도의 길을 재촉함에도, 고행에 맞설 용기가 미약한 심리를 내 보이는데, 藍采和가 수행을 거부하는 직접적 이유는 곧 심리적 두려움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안정된 생활을 선호하며 이상을 향해 도전함을 두려워하여 그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성향을 보인다.

이로 볼 때, 月英의 이미지는 勇을 지향하는 龍의 의미를 확연히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藍采和의 수도에 대한 두려움은 龍이 지닌 진취적 기상과 상반되는 의미를 보이고 있음으로써, 질은 대비 효과를 통해 『八仙得道傳』이 추구하는 龍의 神聖을 더욱 강렬하게 현시하고 있다.

5. 결어

『八仙得道傳』에서는 인간이 신선이 되어 가는 과정이 龍이 내포하는 의미와 어떤 연관을 맺고 있으며, 어떻게 어우러지고 있는가를 독특한 필치로 그려내고 있다. 『八仙得道傳』에서는 八仙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도 특히 張果老, 何仙姑, 藍采和, 李鐵拐가 신선이 되는 과정과 흐름이 비교적 자세히 다루어지면서, 龍性和 신선의 이야기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는 이야기의 흐름과 구조를 통해 龍性이 지향하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八仙의 故事는 도교라는 종교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龍의 속성에 내포된 榮和, 勇의 메시지가 다분히 교도적인 의도와 결부되어 표출되고 있다. 또한 和, 勇로 대별되는 龍의 神性은, 辱, 爭, 懼와 대립적 관계를 이루면서, 『八仙

23) 龐進, 中國龍文化, 重慶: 重慶出版社, 2007, 293쪽 참조.

『得道傳』이 지향하는 龍性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八仙得道傳』은 특히 민간소설에 속한다는 점에서 八仙의 이야기와 龍이 상징하는 바에 대한 지향성을 통해 당시의 민중 심리를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민중의 고통을 해결하는 治水의 龍은 민중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 스스로의 光榮의 역사를 창조하고 있다. 또한 龍은 바다의 왕으로서 신선을 추구하는 이들과 직,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데, 바다로부터 흘러 온 생물을 조상으로 하는 경우, 바다에 투신함을 통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경우는 모두 龍의 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즉 龍王의 治理 하에, 신선을 열망하는 이들 혹은 운명적으로 신선이 될 이들은 孝, 慈 등의 인륜지도와 포용지도의 의미를 통해 龍의 상징이 지향하는 승화의 의미를 체현하고 있는데, 이는 분열이 아닌 평화를 갈망하는 민중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고난을 극복하고 스스로의 이상에 도전하며 타인을 신선의 길로 인도하는 인간의 모습 등은 자기 초월의 향한 민중의 욕구를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전설 속에서 죽은 이로 표현된 孟姜女를 月英으로 부활시켜 득도를 통해 度脫을 이루게 함은 생명의 의지를 표출하고자 하는 민중 정서를 역동적으로 표현해 내고 있다.

이로써 榮, 和, 勇로 표현된 龍의 긍정적 상징에 대한 지향성이 민중 심리와 깊은 결합 구조를 지니면서 『八仙得道傳』에 長久한 생명력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參考文獻

- 『산해경』, 정재서 역주, 서울: 민음사, 1985.
- 顧頡剛, 『孟姜女故事研究集』, 臺北: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2004.
- 何星亮, 『龍: 圖騰——神』, 民族研究, 第二期, 1993.
- 李昉等編纂, 『太平廣記』, 長春: 吉林攝影出版社, 2003.
- 龍芃穆, 「試論中國龍文化的起源」, 大眾文藝, 19期, 2010.
- 龐進, 『中國龍文化』, 重慶: 重慶出版社, 2007.
- 龐進, 『龍之魅-中華龍文化50講』,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2011.
- 無垢道人, 『八仙得道傳』, 南京: 鳳凰出版社, 2008.
- 王大有, 『中華龍種文化』, 北京: 中國時代經濟出版社, 2006.
- 吳承恩, 『西遊記』, 副州: 福建美術出版社, 2012.
- 『新編說文解字大全集』編委會編著, 『新編說文解字大全集』, 北京: 中國華僑出版社, 2011.
- 許仲琳, 『封神演義』, 長沙: 岳麓書社, 2012.
- 阮青 注釋, 『淮南子』注釋本, 北京: 華夏出版社, 2000.
- 朱乃誠, 『中華龍起源和形成』, 北京: 生活讀書 新知 三聯書店, 2009.

Abstract

Symbolization and intention point seen through *The story on the enlightenment of the Eight Immortals*

– Centering on the meaning of glory, harmony and courage

Park Maria

Wuhudaoren, a writer of *The story on the enlightenment of the Eight Immortals*, states in its preface that it is a duty of the follower to search the situation of cultivation of the previous ones who went on to seek for Tao. In this book, while depicting the process of becoming Immortals overcoming various difficulties, it begins the story with the tale of dragon. Here, the process of becoming Immortals is mainly developed in the region of governing area of dragon. Further, in relation to the fact that dragon is recognized as aquatic being while having a close relationship to water, two points are directly linked to the meaning of dragon's characteristics. The first one is on becoming Immortals through the transformation of aquatic creatures into man. The second is on the old tale of reemergence as Immortals gaining a new life after throwing oneself into the sea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difficulties to become Immortals.

Dragon simultaneously contains positive and negative meaning. In all, the meaning of glory and disgrace, harmony and contention, courage and fear enrich the contents of *The story of enlightenment of the Eight Immortals*, entangled with various process into becoming Immortals. Yet, the religious character of *The story of enlightenment of the Eight Immortals* has a characteristic to give prominence to positivistic aspect through containing instructive thought while suggesting the conflicting meaning on dragon's characteristics.

In sum, the meaning of disgrace, harmony and courage emphasized in *the story of enlightenment of the Eight Immortals* reveals the religious value achieving harmony with immortal's old tales.

Key words : dragon's characteristics, Immortals, glory, harmony, courage

투 고 일 : 2013. 09. 10. / 심 사 일 : 2013. 10. 20. ~ 2013. 10. 27. / 게재확정일 : 2013. 10. 28.